

뱅크 앱부터 웹드라마까지 ‘인기 폭발’ 국민銀

더 편리하고 쉬워진 ‘KB스타뱅킹’ 리브엠 등 7개사 서비스 한데 모아 걸그룹 에스파 세계관 녹인 ‘웹드’ 국내·외서 전편 100만 뷰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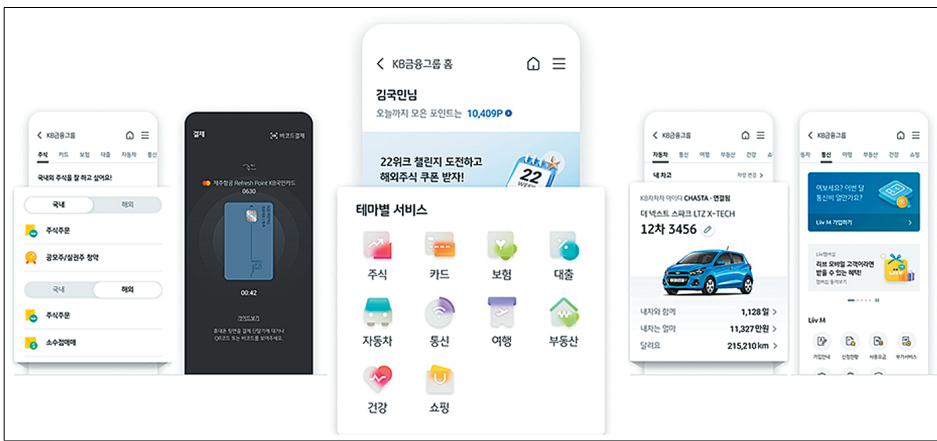
KB국민은행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객의 편리한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뱅킹인 KB스타뱅킹을 개편했고, 첫 웹드라마인 ‘광야로 걸어가’ 전편이 100만 조회 수를 돌파하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모은 것이 대표적이다.

●KB스타뱅킹,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우뚝

먼저 금융을 넘어 고객에게 편리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B스타뱅킹을 전면 개편했다. 비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계열사 플랫폼 이용을 쉽게 한 것이 특징으로, KB금융 서비스 메뉴를 고객의 흥미와 관심 위주의 사용자환경(UI)으로 개선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식, 카드, 자동차, 통신 등의 카테고리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KB금융의 비금융 서비스 KB차차차, 리브엠, KB부동산, KB웰스케어 등을 전면 배치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자동차, 통신, 부동산, 건강 카테고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또 KB스타뱅킹 하나로 KB금융 7개 계열사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KB페이의 경우, 모바일 결제 기능과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능을 도입했다.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휴대폰이면 오프라인 매장 어디서든 휴대폰 접촉으로 KB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KB



KB국민은행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객의 편리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개편을 단행한 KB스타뱅킹(위)과 전 편이 100만 조회 수를 돌파하며,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웹드라마 ‘광야로 걸어가’.

증권의 계좌개설 및 해외주식 소수점매매와 공모주 청약, KB손해보험의 미니보험, KB생명보험의 연금보험, KB차차차의 매물조회 등 41개 서비스를 추가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을 넘어 고객의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추구했다”며 “향후 KB스타뱅킹에 편리한 생활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했다.

●첫 웹드라마 전편 조회 수 100만 돌파

자사 모델인 걸그룹 에스파의 세계관을 차용한 첫 웹드라마 ‘광야로 걸어가’ 전편이 100만 조회 수를 돌파하며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스파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S MCU(SM Culture Universe): aespa’의 세계관을 차용해 기획했다. ‘KB 광야집’이라는 새로운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KB국민은행 고객 데이터로 만든 아바타 ‘ke(케이)’를 배경으로 구성했다.

그 속에서 미래 금융에 대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KB의 모습과 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판타지 정춘 로맨스를 보여준다. 에스파가 직접 출연한 티저 영상을 비롯해 본편 4회 모두 100만 조회 수를 돌파해 150만을 향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댓글에는 ‘요즘 트렌드와 감각에 어울리는 웹드라마’, ‘참신한 스토리와 퀄리티 높은 연출력이 어우러져 몰입감이 상당하다’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스토리가 너무 흥미롭다’, ‘다음 에피소드가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어 자막도 있어 놀랐다’ 등 자국 언어로 댓글을 달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인기 이유로는 MZ세대에 친숙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참신하고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 공략 등이 꼽힌다. 더불어 ‘에스파의 세계관’을 차용한 스토리 라인이 해외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15일까지 리브넥스트에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야로 걸어가’ 웹드라마를 시청하고, 영상 속 ‘KB국민은행 광야집’이 탄생한 곳의 힌트를 찾아 퀴즈를 맞으면 된다. 추첨을 통해 에스파 사인 CD를 증정한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양혜련 KB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 차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아 놀랐다. 신선한 스토리와 MZ세대에게 공감을 이끌어 낸 세계관 마케팅이 주요한 것 같다”며 “향후 새 형식과 이야기를 담은 후속작을 기획 중이니, KB국민은행의 미래금융을 향한 도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한 새 그룹 캠페인 영상.

‘모두가 누리게 될 금융 이상의 금융’ 하나금융, 손흥민 모델 캠페인 공개

하나금융이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한 새 그룹 캠페인 영상 광고를 선보였다.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라는 새 비전에 맞춰 하나금융만의 방식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금융 그 이상의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메시지를 알리고자 기획했다.

‘내일의 금융에게’라는 주제로 제작했으며, 손흥민이 ‘고객이 미래의 금융에 바라는 소원’을 ‘하나만의 방식’으로 이뤄주는 장면을 통해 신뢰, 혁신, 플랫폼 등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하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쉽고 편리한 서비스, 새롭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추구라는 뜻을 모두 담아 ‘연결’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간과 공간, 미래와 가치를 연결해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금융 그 이상의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회사 측은 “손흥민의 역동성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정신이 이번 영상 광고에 반영돼 하나금융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농협은행 방문예약, 모바일뱅킹서 간편 신청

NH농협은행이 ‘All One Time 방문예약 서비스’를 리뉴얼했다. 편리한 시간에 가까운 영업점에서 원하는 금융전문가와 상담 받을 수 있다. 모바일뱅킹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영업점, 방문일자, 시간, 상담업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되고 도착알림 버튼을 누르면, 영업점 상담직원이 고객 방문이 실시간 통지돼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또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전 상담표와 고객과의 소통 및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신설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신한금융, MZ세대가 조직문화 바꾼다

‘후랜드 위원회’ 2기 발대식

신한금융이 최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신한문화 재창조를 위한 ‘리부트 신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후랜드 위원회 2기 발대식을 열었다.

후랜드는 후(who·누구)와 프렌드(friend·친구)의 합성어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MZ세대의 특성을 지칭한다. 지금과 소속 등을 뛰어 넘어 모두가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030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으로, MZ세대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방법을 발굴한다. 지난해 8월 출범한 1기는 직위 체계 간소화와 자유로운 호칭 사용,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자유로운 복장 착용, 셀프 휴가 결제 프로세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발대식에 참석해 후랜드 위원회 2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향후 추진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냈다. 조 회장은 “자유롭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로의 탈바꿈은 ‘리부트 신한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조직문화 개선과 세대 간 간격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주도



후랜드 위원회 2기 발대식에서 선발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가운데).

할 후랜드 위원회를 응원한다”고 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그룹 대표 캐릭터인 ‘신한 프렌즈’에 신규 캐릭터 2종을 추가했다. 에너지 넘치는 행동파이자 친구들의 고민 해결사인 라콘 ‘플리(PLI)’, 스트릿 댄스와 프로듀싱 능력을 겸비한 쿨한 성격의 힙합

뮤지션 부엉이 ‘레이(LAY)’ 등으로 구성했다. 회사 측은 “신한 프렌즈를 활용한 금융 상품과 굿즈, 캐릭터 카페, 유명 일러스트 작가 협업 등 신한of 브랜드 스토리를 새롭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정국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9일 (화) 음력: 7월 1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아질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부부싸움을 조심해야겠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인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라.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한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험을 피하고 내부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 오늘은 육체일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침착하게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가 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이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이나 투자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뚜렷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몸과 마음이 균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연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쫓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적이 유리해진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불의를 의식하여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맞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여성은 남자로부터 인하여 망신에 관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말날로 편관도화이다. 편관은 길보다 흉이 더 강하다. 남자는 관재수와 질병을 조심하고 여자는 심리적으로 조조하므로 마음을 안정시켜라.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아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지나친 야망과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긴안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물론 뻔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풀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하라.						